

사도행전 7장 17-38절 말씀

설교①-3 모세의 애굽생활에 대하여

-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
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
-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
-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
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새
-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
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
- 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
-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
- 23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
-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
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
- 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
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
-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
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
- 27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
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
- 28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
- 29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
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

설교①-4 모세에 대하여

-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
-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
-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
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
-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
-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
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
- 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
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

-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
-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
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
-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
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
곧 이 모세라
-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
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